■ JDC·한라일보 주최 16차 교육 특강 / 주호민 웹툰작가

“‘재미있다’는 말이 창작의 원동력”

15년의 만화 인생 추억과 경험 등 소개

“몰입을 경험하는 것 나아가는데 큰 도움”

주호민 웹툰작가는 16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진행된 교육특강에서 창작의 원동력을 ‘관심’이라고 했다. 강희만기자

천만관객 영화 ‘신과 함께’ 원작자로 ‘스타덤’에 오른 주호민 웹툰작가에게도 고민이 있다. “작품 하나 하나 끝날때마다 자신이 없어진다. 더 재미있는, 호응을 얻을 만화를 그릴 자신들.” 하지만 그는 “책상 앞에 앉으면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만화 그리는데 집중하게 된다. 그렇게 몰입하게 되면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더라”고 했다.

그는 “나중에 웹툰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몰입의 경험’을 꼭 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창작활동이나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16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한라일보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주최하는 열여섯번째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JDC 톡톡튀는 교육특강’이 열렸다.

이날 무대에 오른 주 작가는 ‘상상력은 어떻게 만화가 되는가’라는 주제로 15년의 만화 인생을 풀어냈다. 그는 이날 다양한 장르의 만화가 탄생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연재 후 성취감과 생각의 변화 등에 대해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전했다.

특히 그는 15년동안 창작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관심’이라고 했다. 중학교 시절 친구들의 “재미있다”는 반응에서 시작해 프로로 데뷔하고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는 원천은 사람들의 “재미있다”는 말이었다. 군대만화 ‘짬’으로 어느정도 인정을 받았음에도 “계속 할 수 있을까” 진로를 고민했을때에도 선배 작가의 “재미있게 봤다”라는 말이 힘이 됐다고 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만화, 그림과 관련된 직업이 사라지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와 경쟁력을 물은 참석자의 질문에는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열망, 창작욕을 대신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라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런 거에 신경쓰지 말고 열심히 그리고 싶은 것을 즐겁게 그렸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친구들의 모습이나 제주 신화 등 제가 좋아하는 것을 재미있게 탐독하고 소화해서 내놓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다”며 “재미있지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맛있게 가공해서 보기좋게 내놓는 역할을 앞으로 더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특강은 도내 청소년들의 인생 나침반이 될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열정을 갖고 미래를 준비함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의 멘토를 초청해 이뤄지고 있다. 오은지기자

제주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 상위권

총 6종 진단능력 평가결과 17개 시·도중 2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2019년 가축질병진단기관 동물 질병진단 능력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 가축질병진단기관 동물 질병진단 능력평가’는 전국 시·도 질병진단기관의 진단기술 향상 및 표준화를 도모하고, 신속·정확한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능력평가에서는 소 브루셀라병,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닭 뉴캣슬병, 가금티푸스, 꿀벌 낭충봉아부패병과 병리조직검사 등 총 6종에 대한 질병진단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2017년도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 기관 및 2018년 4월 야생동물 질병진단 기관으로 지정받아, 전문 검사인력 확충과 검사능력 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 등을 통해 도내 양축농가의 가축질병 피해 최소화와 체계적인 질병 관리에 앞장서 왔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교복 개선’ 학생 의견 최대 반영”

교육공론화위, 도민참여단 구성시 40% 결정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첫 공론화 의제인 ‘중·고등학교 교복개선’ 숙의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제주도교육청은 향후 도민참여단 구성 시 학생, 학부모, 교사, 도민을 4:3:2:1로 반영해 응답자 1800명 규모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공론화 과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150명을 도민참여단으로 선발하게 된다.

도민참여단은 공론화 의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경청,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 한 후 그 결과를 8월 쯤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교복개선의 정책권고안을 작성한 후 8월 하순 이석문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지역 ‘고추 칼라병’ 확산 주의보

최근 도내 고추재배에서 토마토 반점위조 바이러스(TSWV)에 의한 ‘고추 칼라병’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농가의 방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고추 칼라병 발생에 대응해 현장에서 신속히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긴급 확보, 현장 지도에 나서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칼라병은 꽃노랑총채벌레가 옮기는 것으로, 무엇보다 방제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칼라병에 걸리면 새순 부위가 구부러지고 잎은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뒤쪽으로 말리는데 심하면 잎과 줄기가 고사한다. 어린 열매는 검게 변하고 성숙한 열매는 식용하기에 부적합해 폐기처분해야 한다. 이소진기자

‘제주 해녀상’ 표준 모델 개발 잡음

조각가협회 “창작범위 훼손·획일화 우려… 철회돼야”

제주도 “고유성 보존 차원으로 민간설치물 강제 안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제주해녀상 표준모델’을 놓고 제주지역 조각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 목적을 제주해녀들의 고유성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데 반해, 제주지역 조각가들은 기존 해녀상의 고유성과 상징성이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표준모델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조각가협회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녀상 표준모델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 임원들은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해녀상 모델은 도민들과 전문가들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의견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태적인 면에서는 테왁과 망사리의 경우 실제 크기를 무시한 비례의 불균형과 부자연스러운 손과 발에서 보여지는 조형적 표현력은 제주의 해녀상으로 상징되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해녀상 표준모델 개발은 제주 곳곳에 양산돼 설치된 비정상적인 인체 표현과 기형적인 비례의 해녀상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는 있으나 그 의도와는 다르게 획일화 되어지고 해녀를 연구하는 작가의 창작범위를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같은날 해명자료를 통해 “그동안 도내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설치된 해녀상에 대해 살아있는 문화유산인 제주해녀들의 가치나 고유성 훼손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조각가, 서양미술가, 해녀문화전문가, 현직 해녀, 디자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표준모델 개발 자문회의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4월 19일 열린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에서는 제주해녀상 표준모델에 대한 심의를 거쳐 기본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기준들은 한국미술협회 임원인 조각 전문가에 의뢰해 형성화 한 것일 뿐 조각가의 창작활동 영역을 침범하려 한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어 “조각 부분만이 아니라 도내 다양한 조형물에 대한 해녀 고유성 보존차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향후 공공기관의 해녀상 설치 시 기준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민간 설치물인 경우에는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나, 강제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KBS 도전 골든벨 제주예선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오는 7월 14일 학내에서 한글날 특집 ‘KBS 도전 골든벨’ 제주지역 예선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참가 자격은 도내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전국 본선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수원 KBS 드라마센터에서 녹화된다. 문의 제주대 국어문화원 064-754-2712. 백금탁기자

사랑으로